

도 설명절 중소기업에 100억원 쏟아

내수면 양식산업 발전계획 밑그림

전북도, 90억원 투입 인프라 강화·신성장동력 확보

긴급경영안정자금 통해 자금난 해소...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설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체불임금 지급,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자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이며 기존 도·시·군

의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 사항을 적용, 평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2년미

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연간 매출액의 100% 한도 내)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도 관계자는 "금번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2월 14일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1, 20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도체육회 이사회 23일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체육회장(도지사)을 비롯한 부회장, 이사와 감사 등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체육회 제11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보고사항 2건 및 심의사항 6건을 의결했다.

전북 탄소산업 세계로 쭉쭉

국제공동 탄소복합재 상용화 연구로 기업지원 확대

전북도와 전주시는 2018년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이하 '카본로드사업',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수행)을 기업지원,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카본로드사업은 선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도내 탄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에도 도내 수요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제품상용화를 위해 독일, 미국, 일본 등 해외 기업,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작년까지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에서 앞서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된다.

또한 6월에 개최되는 태국 국제플라스틱 전시회 등에 참가, 도내 기업들의 제품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독일 MAI카본클러스터와 전북도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교육훈련, 사업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등 5대 분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독일 MAI카본클러스터의 간행물에 전북 탄소산업 현황과 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더불어 한독 기업간 상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9월경에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 임노숙 탄소산업과장은 "탄소산업 글로벌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전북 탄소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도내 기업들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전북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는 올해 내수면 인프라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내수면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전북 내수면 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를 올해 내수면 산업 분야의 비전으로 정하고 내수면 중장기 비전 및 발전 극대화를 위해 내수면 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해 체계적인 내수면정책 마스터플랜 구축과 국가예산 발굴 등 내수면양식 산업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사업은 7000만원을 투자, 내수면 양식어종의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으로 다양한 레시피 개발과 체험행사 등 소비위축에 따른 판로 확대를 개척할 계획,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양식장에 청정 지하수 개발 시설을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서 뽑는 2018년도 내수면지원조성 공모사업에 도내 양식단지 1개소가 최종 선정이 되면서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내수면 어업을 전국 내수면의 전진기

지로 육성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돼 메기를 활용한 반 건조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향어를 활용한 훈제품 및 어포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내수면 판로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투자한 75억원(11개 사업)보다 많은 예산(90여억원, 15개 사업)을 들여 내수면 산업 기반 확대 및 환경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역 내수면 양식장 면적은 지난해 기준, 265ha로 전국(851ha) 시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생산량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내수면 양식 어류 중 황어1,342톤, 미꾸라지611톤, 동자개173톤, 메기 1,849톤, 금붕어 34톤, 비단잉어 18톤의 경우 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했다.

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국내 성장 잠재력의 내수면어업을 활성화 시키고, 내수면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를 내수면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유기상 소장 '바뀌야 바뀐다' 출판기념회

내달 3일 고창농협 하나로마트서 군민과 소통 갖기로

6.13 지방선거 고창군수 출마예정자인 유기상 고창미래전략연구소장은 다음달 2월 3일(토요일)에 고창농협 하나로마트 문화센터(2층)에서 '바뀌야, 바뀐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여느 행사와 다르게 긴 시간동안 책 내용을 중심으로 독자들과의 토론, 저자 사인회, 저자와의 사진촬영 등 충분한 호흡,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유기상 소장의 신간 '바뀌야, 바뀐다'는 '일본발 지방자치 정책실험', '실버산업을 잡아라', '일본의 지방자치와 지역경영', '고창사람 유기상의 꿈', '조선 후기 실학자의 풍수사상'에 이어 여섯 번째 저서이다.

부제인 '유기상, 군민속으로'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가 귀향 후 4년 동안 고창에서 살아온 흔적을 기술하였다.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부시장 등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37년간 종합행정전문가의 시각과 군민속으로 들어가 각계 각층 전문가들과 만나 고창의 미래 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첩에 적은

민원, 정책 그리고 신문기고 칼럼 등으로 내용이 꾸며 졌다.

유 소장은 "지난 연말 각 언론사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통해 2018년 시대정신은 '변화'임을 직감할 수 있다. 적폐청산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 시기에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군민속으로 들어가 민의를 청취하면 '바뀌야 바뀐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생명산업 거점지역인 우리 고창을 위해서 농업농촌살리기 개헌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개혁을 위해 지방자치분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자 유기상 소장은 '고졸, 방송대출신으로 9급 공무원·7급·행정고시'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져 의지의 한국인으로 불린다. 본인이 직접기획하고 추진한 '전주 한옥마을'은 전북 뿐 아니라 국내 최고의 도시 재생 지역성공 사례로 잘 알려졌고,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세계소리축제', '생활체육대축전' 등 문화 체육행사를 협치(거버넌스)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